



칠곡가톨릭병원 소식지

동행

Daegu catholic Univ. Chilgok Catholic Hospital News | 2026년도 1분기

Mission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병원

Vision 신뢰와 존경받는 지역 최고의 칠곡가톨릭병원

발행처 | 칠곡가톨릭병원 행정관리과 홍보전략팀

전화 | 053) 320-2079,2123

HP | www.tcmch.co.kr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새병원 건립 축복·기공식

2025. 12. 12(금) 10:00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새병원 건립 축복·기공식

2025. 12. 12(금) 10:00

새병원 증축 기공식, 새로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도약 신호탄

2025년 12월, 칠곡가톨릭병원은 새 병원의 기공식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땅을 고르고 첫 삽을 뜨는 그날의 풍경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묵묵히 준비해 온 병원의 철학과 다짐이 고요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축복의 기도와 함께 시작된 이 날은, 병원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들어설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약 300병상에 가까운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 의료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 공간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번 신축은 '더 크고 더 많은' 병원이 아닌, '더 깊고 더 따뜻한' 병원을 지향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환자 중심의 구조입니다. 진료 효율을 위한 동선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가 머무는 시간 자체가 덜 불안하고 덜 고단하도록 공간이 설계되었습니다. 햇빛이 스며드는 휴식 공간, 숨을 고를 수 있는 야외 공간, 그리고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환자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새 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음압병실과 특수 진료시설, 보다 체계적인 진료 인프라는 지역 의료 환경에서 꼭 필요했지만 쉽게 갖추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칠곡가톨릭병원은 이 공백을 채우며, '멀리 가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부서별 목표 수립과 연구 활동, 의료경영 분석을 병행하며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합니다.

새 병원은 2028년 4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시 대구 북부 및 경북 북부권까지 아우르는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전망입니다.

Chilgok Catholic Hospit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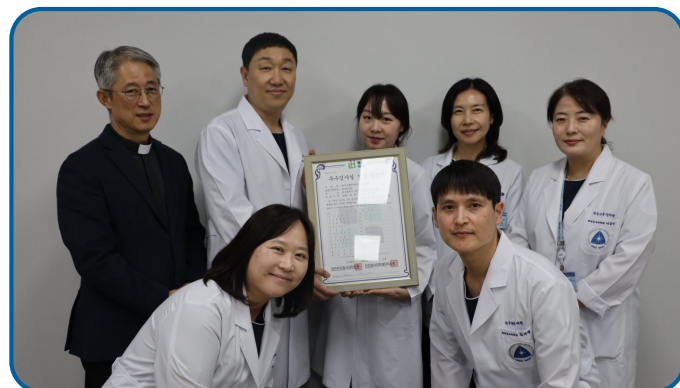
칠곡가톨릭병원...새 병원 기공식 성료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은 지난 12일 새병원 건립 축복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 장신호 주교를 포함해 대구 북구 보건소장, 시공사인 HS화성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새병원은 2028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연면적 2만4천210㎡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지어지며, 291개의 병상을 포함해 음압병실 등과 같은 특수병동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단순 질환자뿐만 아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고 전문 진료를 특화해 강북지역을 넘어 경북 일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의료 역할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 질환 위주의 진료를 넘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진료 분야를 특화함으로써 대구 강북권은 물론 경북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의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민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칠곡가톨릭병원, 제7대 병원장 김병수(루카) 신부 취임식 개최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은 지난 1월 21일 제7대 병원장 김병수(루카) 신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구대교구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와 대구가톨릭대 성한기 총장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임 병원장 취임을 기념했다. 김병수 신임 병원장은 "직원이 행복하면 환자가 행복하고, 환자가 행복하면 병원이 발전하고 건강해진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병원의 미션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병원인 만큼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임사를 전하며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칠곡가톨릭병원 제7대 병원장 김병수 신부는 2001년 사제서품을 받고 대구대교구 사목국 청년성서 담당과 교구설정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본부 영성분과 위원, 대구대교구 성소담당 및 성소국장으로서 지냈으며, 이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행정처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전반에 경험을 쌓아왔다.



진단검사의학과,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획득

칠곡가톨릭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주관하는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인증을 획득하였다.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제도는 진단검사의학과와 검사 정확도와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자에게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검사실 운영 ▲진단혈액 ▲임상화학 ▲임상미생물 ▲수혈 ▲진단면역 ▲종합검증 ▲현장검사 등 총 8개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정확한 진단검사는 적절한 치료의 출발점이자, 진료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이번 인증획득의 의미가 남달랐다. 칠곡가톨릭병원은 매년 우수검사실 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진단검사 결과와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내 손 안의 칠곡가톨릭병원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칠곡가톨릭병원, 정형외과 정석환·산부인과 김흥열 과장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정형외과 정석환, 산부인과 김흥열 진료과장을 초빙했다. 정형외과 정석환 과장은 고관절을 중점으로 골절, 관절염, 족부, 외상, 인공관절수술 등 수술 및 비수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부인과 김흥열 과장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미국 예일의대병원에서 임상교수를 역임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진료과장 초빙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정형외과 정석환, 산부인과 김흥열 과장은 "칠곡가톨릭병원의 일원이 되어 지역민의 주치의가 될 수 있어 영광이다."며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칠곡가톨릭병원에 내원해주시는 분들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달의 협력 의료기관



대구 케이병원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57(읍내동)



병원장 : 최동호 신경과 전문의

| 진료안내 |

신경계 재활치료, 근·골격계 치료, 건강검진센터, k-메디핏센터

| 진료시간 |

월~금요일 - 8:30 ~ 17:30
토요일 - 8:30 ~ 12:30
점심시간 - 12:30 ~ 13:30
일요일 및 공휴일 - 휴진



이 달의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종별	의료 기관명	소재지
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91
한방병원	달서 당당한방병원	달서구 두류공원로 256, 10~14층
한방병원	수월한방병원 침산점	북구 침산로 148, 4~7층

진료 의뢰 및 회송절차

진료의뢰 (전화, 팩스, 인터넷)



대상
협력병·의원
지역병·의원



진료협력센터
상담
예약
접수



진료협력센터
진료회신서
관리



외래/응급실/입원
진료 및
진료회신서
작성

회신서 발송 및 회송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언론 속 칠곡가톨릭병원

언론사	내용	
의학신문	칠곡가톨릭병원, 새병원 건립 본격화...HS화성 시공사 계약 체결	언론기사
영남일보	칠곡가톨릭병원, 300병상 새병원 기공...강북·경북 의료 공백 메운다	언론기사
매일신문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환자중심 의료 실천	특집기사
매일일보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제6차 페럼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언론기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작

제7대 병원장 취임식



칠곡가톨릭병원 제7대 병원장 김병수(루가)신부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희망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그 공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이끄는 리더가 있다면 그 병원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병원장으로 취임하신 김병수 병원장님은 바로 그런 사람 중심의 마음을 지닌 리더입니다.

취임식 자리에서 병원장님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환자가 행복하고, 환자가 행복하면 병원이 발전하고 건강해진다.” 이 짧지만 깊은 말은, 우리가 일상의 진료 속에서 종종 잊고 지내는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줍니다.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이 말은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순간을 마음 깊이 공감하는 병원이 되는 것. 그것이 곧 병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꿈꾸는 의료 서비스의 본질입니다.

김병수 병원장님은 이러한 믿음 위에 병원의 미래를 세우고자 합니다. 방금 막 첫걸음을 떤 '새병원 건립'이라는 큰 과제도, 결코 숫자나 시설의 확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일로 해석합니다. 그 일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의료 현장에도 찾아왔습니다. 환자의 기대와 요구도 더욱 다양해졌고, 병원 구성원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적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일수록 리더의 마음가짐과 방향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병원장님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단단한 가치 위에 우리의 하루를 올려 놓음으로써, 병원이 단지 치료의 공간을 넘어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김병수(루가) 신부님의 병원장 취임은 우리 병원이 걸어온 길에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병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잃지 않고, 환자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제7대 병원장 김병수 신부님의 진심 어린 발걸음에 깊은 응원과 축복을 보냅니다.



레킴비 자세히 보기

치매 신약 레킴비 접종 안내



알츠하이머 표적치료제, 레킴비로 해결하세요! 칠곡가톨릭병원 신경과 레킴비 접종 안내

레킴비는

레킴비에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물질인 레카네맙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덩어리에 결합하여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3상 임상 연구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수치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레킴비 접종 대상

레킴비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경도인지장애 → 치매 발병 지연

경증의 치매환자 → 심각한 단계로의 진행속도 늦춤

3상연구에서 레킴비 투약 18개월 후 **진행이 27% 늦췄다는 결과 도출**

레킴비 투여 주기

체중 kg당 10mg이며 2주에 1회 투여합니다. (한시간 소요)



이 달의 영화

아메리칸 셰프 American Chef



개봉일 : 2015년 1월 7일 장르 : 드라마
 러닝타임 : 114분 감독 : 존 파바로
 *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한 한 셰프가 다시 삶의 불을 지피는 과정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 영화는 요리를 소재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관계, 그리고 '나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

주인공 칼 캐스퍼는 오랜 경력과 실력을 갖춘 셰프로, 이미 업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명성과 달리 그의 하루는 반복적이다. 레스토랑 오너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메뉴를 만들고, 새로운 요리를 제안해도 번번이 거절당한다. 한때 창의성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주방은 이제 칼에게 숨 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실력도 명성도 충분하지만, 레스토랑의 방향을 쥐고 있는 오너와의 갈등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의 요리를 잃어간다.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고 싶어도 허락받아야 하고, 손님보다 평점과 평론가의 눈치를 보는 현실 속에서 요리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의무가 된다. 그러던 중,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칼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대응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킨다. 단 한 번의 실수는 그가 쌓아온 커리어를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직장을 잃은 칼은 주방도, 명예도, 방향도 없는 상태로 삶의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게 된다. 그때 그의 곁에 남아 있는 것은 전혀 이네즈와 아들 퍼시뿐이다. 어색하고 서툰 부자 관계 속에서, 칼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쳐왔는지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네즈의 제안으로 그는 낡은 푸드트럭 하나를 손에 넣으며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푸드트럭은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정반대의 공간이다. 좁고 뜨겁고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롯이 자신의 요리를 할 수 있다. 칼은 아들 퍼시, 그리고 오랜 동료 마틴과 함께 트럭을 개조하고, 직접 장을 보고,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어 나간다. 쿠바 샌드위치를 굽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소리와 온기, 재료에 대한 애정은 이 영화가 요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여준다.



이 여정은 단순한 장사 여행이 아니다. 마이애미에서 뉴올리언스를 거쳐 텍사스를 지나 로스앤젤레스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칼은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요리의 즐거움을 되찾는다. 특히 아들 퍼시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 영화의 가장 큰 감동 중 하나다. 요리를 가르치고, 함께 음악을 듣고,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아버지는 셰프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아들은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칼캐스퍼의 이야기는 특별해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성과를 얻게 되며서 평가와 기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이 영화의 인상적인 점은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더 큰 무대와 더 큰 명성, 더 많은 수입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공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푸드트럭이라는 작은 공간에서야 칼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마음이 음식과 표정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크게 요리와 관련된 영화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을 담아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가족과 관계, 동료와의 의리,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되문고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아메리칸 셰프>를 보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있는 자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자리인지, 혹여나 남의 입맛에 맞춘 인생을 살고있는지는 않은지.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답을 주기 보다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 합니다. 인생이 조금 식어버렸다고 느껴질 때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시 불을 켜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통해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다시 만들면 된다고.



고/객/감/동/사/연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5병동 선생님들께

입원시부터 퇴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환우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케어해주시며 항상 미소와 친절로 대해주셔서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퇴원합니다. 간호사 분들의 친절과 헌신이 아플 때마다 칠곡가톨릭병원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가족들이 직접 케어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는 순간까지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돌봐주시는 5병동 간호사 일동을 칭찬합니다. 최고의 친절과 아침마다 들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좋았습니다.



내과 유승현 부장님께

타병원에서 들었던 원론적인 말씀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실오라기라도 잡고자 유승현 선생님께 또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1년전 갑자기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셨던 엄마가 많이 좋아지신 경험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찾은 가톨릭병원에서는 유승현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 고객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한말씀, 한말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우리 칠곡 지역의 든든한 의사선생님으로 오래 기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칭찬 및 개선사항 수거방법

1. 고객센터(각 층 엘리베이터 옆)
2. 원무과 퇴원 창구(퇴원 시)
3. 간호사실 데스크
4. 고충상담실(2층 원무과 사무실)

<칠곡가톨릭병원 홈페이지 QR코드>



홈페이지에서도 고객의 소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www.tcmch.co.kr

칠곡가톨릭병원의 새얼굴 |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만들다
**칠곡가톨릭병원의 새얼굴,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칠곡가톨릭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신입사원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임원

병원장 김병수

진료지원과

영상의학팀 박초연

진료과

정형외과 정석환
산부인과 김흥열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센터 임권연

간호과

6병동 김성재
특수간호 김규림
외래간호 김윤지

원목실

원목실 이진영

행정관리과

영양팀 박복희
시설팀 신동관



▲ 성탄절 기념 환우 선물나눔 행사 현장 사진

병원 속 틀린 그림 찾기

같이보이는 칠곡가톨릭병원의 사진 속에
틀린 곳이 무려 5개나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찾아 보신 후 틀린 곳을 찾아
홍보전략팀으로 보내주세요 : D

- ▶ 마감 : 3월 15일까지
- ▶ 당첨자 발표 : 26년 2분기 소식지 및 개별 연락
- ▶ 보내실 곳 : 이메일 / hongbo2500@naver.com
카카오톡 ID / Me_zero0908

*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하여
네이버페이 5,000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내원 환자 및 직원들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지난호 틀린그림찾기 추첨 결과

인사총무팀 김기숙
외래간호 구예은
7병동 백창은

* 개별 연락 후 2026년 3월 15일에 일괄 전송해 드립니다.

NAVER 블로그



칠곡가톨릭병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부터 원내 소식까지 업로드 하고 있으니
많고 많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홍보전략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칠곡가톨릭병원 외래진료 일정

진료과	의사	월		화		수		목		금		토	전문분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내과	유승현	●	●	●	●	●	●	검사	휴진	●	검사	순환진료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내분비 질환, 신장 질환 간·담도·췌장 질환 심혈관 질환 (심장초음파 시행) 내시경센터 4회 연속 우수내시경실 인증 위·대장내시경 누적 16만례 달성
	황수은	●	●	검사	휴진	●	●	●	검사	●	●	순환진료	
	최재원	●	휴진	●	휴진	●	검사	●	휴진	검사	휴진	순환진료	
정형외과	강병규	●	수술	수술	●	●	휴진	수술	●	●	수술	순환진료	골절,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인공관절·관절경 수술, 수술 후 재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고출력레이저, 신장분사 시행 등 수술 후 재활치료
	오태범	●	수술	●	수술	수술	●	●	휴진	수술	●	순환진료	
	정석환	수술	●	●	수술	●	수술	●	수술	●	휴진	순환진료	

* 내과, 정형외과 토요일 진료 일정은 매주 달라지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세요.

외과	석상보	●	●	●	●	●	휴진	●	●	●	●	●	내시경, 담낭염·총수염, 복강경 수술, 치질, 탈장, 화상, 정맥류
신경외과	김영균	●	●	●	●	●	격주진료	●	●	●	●	격주진료	뇌출혈, 뇌경색, 뇌진탕, 어지럼증, 두부 외상,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협착증
신경과	배창범	●	●	●	●	●	격주진료	●	●	●	●	격주진료	두통, 어지럼증, 뇌출혈 말초신경질환 신경심리검사, 치매, 파킨슨
산부인과	김흥열	●	●	●	수술	●	●	●	●	수술	휴진	휴진	월경통, 월경장애, 자궁내시경 여성맞춤검진
이비인후과	강병준	●	●	●	●	●	●	●	격주진료	●	●	격주진료	중이염, 인후두편도질환, 알러지 부비동염·비중격 비염수술
치과	박옥희	●	●	●	●	●	휴진	●	●	●	●	●	보철치료, 충치, 신경치료, 턱관절장애

*외래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약 및 내원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료 예약 및 문의: 칠곡가톨릭병원 통합 콜센터 ☎ 053)320-2500

내과/정형외과 토요일 진료 일정표 →



"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

대구 북구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칠곡가톨릭병원
응급실 안내

- ✓ 대구 북구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 ✓ 응급의료기관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대구 2위)
-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전문의 5인 상주
- ✓ 13개 진료과의 전문의와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
- ✓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 및 야간 입원치료로 원스톱 의료 서비스
- ✓ 인공호흡기, CT, MRI 등 첨단 응급장비 및 부속시설 보유